

연변단풍수필회 회원 작품집

단풍일표

연변인민출판사

연변단풍수필회 회원 작품집

단풍잎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장해연

책임교정: 김홍화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枫叶:朝鲜文/延边枫叶随笔会编.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7. 11

ISBN 978-7-5449-0051-5

I. 枫... II. 延... III. 随笔—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6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7)第167329号

枫叶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9 字数: 25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051-5 (民文)

版次: 2007年11月第1版 2007年11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22.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차례

리홍규 편

- 마치 민족의 명절 같았다 / 2
- 편자로서의 교훈과 경험 / 8

현통순 편

- 밋상스런 《딱지》 / 16
- 이름에 담긴 철리 / 22
- 《소설창작론》의 류랑기 / 28

오태호 편

- 언어의 빈곤 / 36
- 혁명의 교과서는 없다 / 41
- 유머의 색조 / 46
- 두번째 직립보행보고 / 51
- 《아리랑》의 메아리 / 56

김길련 편

- 아버지 / 66
- 웃 / 75
- 나를 모른다 / 79

김운일 편

봄의 이미지 / 84

바뀌는 계절에 / 87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는 삶의 지혜 / 91

단풍빛갈의 광채 / 267

한원국 편

폭포따라 구름따라 / 98

김창석 편

사진첩을 들춰보며 / 104

김영금 편

나의 문화기행 / 112

최홍자 편

《예비교원》 / 130

조어대에서 / 133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 136

너희들도 늙을 때가 있으리라 / 139

방룡주 편

외손자애의 풍경 / 144

멋진 동생, 왜 그리 급히 갔나 / 147

장진숙 편

가을의 향기 / 150

《연변문학》과 《화룡산문문학회》 / 155

하늘끝 바다끝에서 / 161

황장석 편

잊지 마시오 / 176

경량급과 중량급의 대결 / 180

비밀이요, 당신만 알고있소 / 183

전성호 편

김용식선생님을 그리면서 / 188

《조화석습》의 즐거움 / 195

억새풀런정 / 198

최균선 편

일본군국주의는 죽었는가 / 204

피로 물든 력사의 장하 / 209

우리는 어디로 갈것인가 / 214

김응룡 편

내게는 정다운 녀자 같은 수필 / 222

왜 나는 못별을 처음 보는듯 하는가 / 224

죽음의 고비고비 넘어온 행운아 / 227

최기자 편

낫순가락뒹기 / 232

내 아픔이 파묻힌 모아산이여 / 237

곤계란을 먹다 / 242

감회 / 247

김영자 편

나의 자화상 / 254

남편의 효성철학 / 258

권해렬 편

금빛애완견 루샤 / 262

리홍규 편

1927년 3월 흑룡강성 소수분하(지금의 수양) 출생.

1946년 3월부터 《인민신보》, 《민주일보》, 《동북조선인민보》에서 근무.

1950년부터 중공연변주위선전부 간사, 부과장, 연변가무단 단장, 주문화처(국) 처장, 연변문련 주석, 연변작가협회 부주석 등 직무를 역임.

중국작가협회 회원, 연변작가협회 회원.

소설집 《개선》, 번역작품 《연안보위》 등 다수.

- 마치 민족의 명절 같았다
- 편자로서의 교훈과 경험

마치 민족의 명절 같았다

-반세기전에 공연된 연극 《춘향전》을 두고

연길에서 연극 《춘향전》이 공연된것은 50여년전인 1955년 10월 부터였다.

모두 알다싶이 조선족이라면 아마 그 누구나 춘향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것이다. 그것은 창극 또는 판소리 《춘향전》은 조선민족의 경전적인 명작으로서 공연과 판소리를 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하여 오랜 세월을 두고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가가호호 남녀로소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기때문이다.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서 결말이 비극이 아니라 희극으로 끝을 맺는것이 이 작품의 일대 특색이라고 느껴진다. 셰익스피어가 쓴 세계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은 결말이 비극으로 끝나는것이 《춘향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점이다. 지금의 한국 TV드라마는 대개 청년들의 애정을 주제로 취급하고있는데 레외없이 부모나 어른들이 반대해나선다. 이것이 주요한 극적갈등이다. 이런것이 흡사 하나의 《공식》인것 같기도 하다. 《공식주의》는 《공식주의》지만 절대 한두마디의 설복교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화》가 아니고 생활을 폭넓고 다양하게 그리고 깊이있게 묘사하기때문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있으며 시청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뿐만아니라 혼인에서의 갈등

이 극도에 달하여 죽느니 사느니 하고 야단치지만 종당에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끝끝내는 자식들의 뜻대로 결합이 성공되어 비극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경사가 이루어지는것이 또 하나의 《공식》으로 되었다. 이것은 《춘향전》에서 온 조선민족의 하나의 문화전통이라고도 말할수 있을것이다. 비극은 눈물과 비애를 자아내지만 희극(여기서 말하는 희극은 비극과 대조해 하는 말이다.)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다. 이런 점에서 《춘향전》은 우리 민족에게 항상 기쁨과 희망속에서 살도록 그 본모기를 보여주었던것이다.

그러나 동북에서 광복전에 연극 《춘향전》을 본 사람은 아마 있는 것 같지 않다. 일본제국주의의 통치하에서 《춘향전》같은 조선민족고전극의 공연이란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였기때문이다.

광복후 연길시에서의 《춘향전》공연은 1955년 10월부 《아래개방지》 연신극장에서 첫막을 올렸다.

나는 그때 막을 올렸던 《춘향전》공연을 어떻다고 형용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대성황이라고 할가, 연변을 열광하게 했다고 할가, 아니면 연변에서 《센세이쑈》을 일으켰다고 할가? 아무튼 그때 사람들은 진짜로 민족의 명절축제를 맞는듯한 기분과 열뜯 분위기였다고 말하는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인듯싶다.

어쩌면 지금의 젊은이들은 연극 《춘향전》을 연극단에서 공연하였을것이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르겠다. 천만에! 전혀 그런것이 아니다. 그때에는 아쉽게도 연변에 아직 연극단이 따로 없었다. 립시로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지도위원회를 내오고 그 지도위원회의 지도밑에서 공연을 했던것이다.

1954년에 내가 연변가무단에서 사업할 때 가무단에는 연극조라는것이 있었다. 허동활, 리영근, 허창석, 원주삼, 정인덕, 광정희 등 동지들이 연극조성원들이였는데 이들은 가무도 하면서 이따금 단막극레를 들면 황봉룡선생이 쓴 《랭상모》같은것을 가무와 함께 공연하기도 했다. 번역극도 좀 했는데 극명은 기억되지 않지만 리영근이 《우참

새》역을 어쩌나 신통하게 잘했던지 그 자신이 《우참새》라는 별명까지 가지게 되었고 그 작품까지도 《우참새》라고 하면 당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연변가무단에는 또 김재한이라고 하는 연극연출(즉 도연)이 있었다. 1954년도의 일인데 가끔 만나면 나와 한담도 하고 사업이야기도 하였다. 한번은 그가 나에게 연극 《춘향전》을 공연했으면 하는 강렬한 욕망을 내비친적이 있었다. 그러나 가무단의 《연극조》라는 자그마한 배우진영을 가지고는 7막이나 되는 대형연극을 공연하기에 너무나도 무리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물론 연변가무단에서도 1950년도 초순에 《항미원조》를 제재로 한 연극(김태희 작)을 공연한 레가 있었다. 그때는 연길 쓰팔린극장에서 공연했었는데 나도 주덕해, 최채 등 동지들과 함께 관람한 일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1954년도에는 형세가 달라졌다. 그해에 가무단 대부분의 배우들이 북경 등 각지의 예술단체에 가 종목을 배워가지고 온것도 온것이지만 가무단이 춤과 노래를 버리고 연극을 한다는것은 제대로 말하면 순리(順理)가 아니었다.

그런데 1955년도에 자치주정부에 문화처(지금의 문화국)가 새로 나오게 되면서 나는 문화처로 전근되었다. 나는 문화처에 간후에도 김재한연출이 《춘향전》공연에 대해 하던 말을 잊지 않고있었다. 나는 문화처의 힘을 빌어 연극 《춘향전》을 공연할 결심을 내리고 곧 행동에 옮겼다.

연극 《춘향전》을 무대에 올리자면 우선 배우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였다. 그때 내가 생각한것은 연길현(지금의 룡정시)예술단전체를 동원하는것이였다.

당시 중공연길현위선전부 부장은 정명석동지였다. 나는 정명석동지에게 전화로 연극 《춘향전》을 공연하겠는데 당신네 현예술단을 몽땅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원래 성격이 시원시원한 정부장은 흔쾌히 나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결과 연길현예술단의 홍춘식, 김수룡 등

17~18명 배우들이 전부 연길로 오게 되었다. 그때의 그 일은 당시의 환경에서 머리만 잘 쓰면 일하기가 퍼그나 좋았었다는것으로 지금까지도 나의 머리속에 하나의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때 연출로는 물론 김재한이 나섰고 부연출로는 김광출, 최문 등이었다. 그리고 춘향역은 저명한 작곡가 정진옥동지의 부인인 신덕순 여사가 맡았다. 골간배우들로는 원래 가무단 연극조 성원들인 허동활, 최문, 리영근, 김광출, 박정희, 정인덕 등이었다. 그때 모든 배우들은 한사람같이 단결되어 밤과 낮을 이어가면서 드높은 적극성과 불타는 열정을 다 발휘하여 연습을 했다. 그때의 그 광경은 지금 생각해도 무척 사람을 감동시킨다.

연극 《춘향전》은 연변에서뿐만아니라 동북각지 레하면 목단강, 심양, 무순 등지를 순회하면서 공연하였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더라도 6개월동안 각지에서 함께 50장(차) 공연했으며 관중은 연인수로 근 4만명에 달하였다. 그때는 큰 극장이 극히 적었고 작은 구락부나 회의실 같은 장소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만한 관중을 확보했다는것은 결코 적은 수자가 아니다. 어데 가서나 극장은 초만원을 이루었다. 연변에서는 이름있는 작가 최정연선생이 그번 공연을 높이 평가하는 글을 써서 《연변문예》에 발표하였다.

한번 내가 룡정에 가서 공연정황을 알아본 일이 있었는데 밤인데도 극장문앞에는 식품을 파는 사람들로 흥성흥성한 야시장을 벌리고 있었다. 진짜 민족의 명절이 틀림없었다. 그때 농촌에서도 관람을 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팔도구에는 이런 미담이 전해지고있었다. 청년들이 먼저 도보로 걸어와서 관람하고는 이튿날 소수레에 담요를 깔고 로인들을 태워가지고 시내에 들어와 공연을 관람하시게 하였는데 구경끝에 로인들은 너무도 흐뭇하고 기뻐서 《야! 이제는 춘향이까지 봤으니 저승에 가 할 말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1956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중앙문화부에서 주최한 전국 연극콩쿠르가 있었는데 연변에서는 《춘향전》을 가지고 가서 천교(天

橋)극장에서 공연을 했다. 물론 공연이 아주 성공적이어서 우리는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때 문화부에서 《춘향전》공연팀에 집체1등상을 수여하였고 김재한에게는 우수연출상을, 그리고 허동활, 정인덕, 리영근에게는 3등표현상을 수여했다. 또 북경의 1급간행물들에서도 본분이 평론을 써서 《춘향전》공연을 찬양하였다.

1958년도라고 생각되는데 당시 중앙정부 문화부 부장이었으며 중국작가협회 주석이었던 모순동지가 연변에 오셨을 때 그가 《조선족은 유구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는 민족》이라고 한 말씀이 지금도 머리에 떠오른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며 우리 민족을 찬양하는 극히 지당한 말씀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때 김태희와 박영일이 이 공연의 지도위원회를 책임졌지만 문화처와의 관계는 주로 박영일이 하였다. 공연을 준비할 때 그들에게는 한푼의 경비도 없었다. 문화처의 경비를 선대해주었는데 공연이 성공되어 수입이 적지 않게 들어오자 박영일은 그 빌린 돈을 인츰 고스란히 문화처에 돌려왔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극 《춘향전》의 공연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때 예상 못했던 일이 발생하였다. 당시 문예사업을 극히 관심하였던 주위서기 주덕해, 주장 최채, 주선전부 부장 배극 등 지도자들이 이 공연이 성공한것을 보고 연극단을 성립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고 제때에 상무위원회에서 연극단을 성립하기로 결정을 내렸던것이다. 1956년 1월에 이 기쁜 소식을 배극동지가 친히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즉시 성립의식을 가졌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때 연극단이 성립되었으면 좋겠다는 념원은 있었지만 그런 목적으로 《춘향전》공연을 조직하고 지지한것은 아니였다. 그런것만큼 연극단의 성립은 나에게 있어서는 한입으로는 다 말할수 없는 희열과 감격을 가져다주었다.

나는 그때 주당위에서 문예활동을 얼마나 중시했으며 아래에서의 창조적인 활동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표창을 했으며 연극단까지

성립시켜주었는가 하는것을 잊지 않고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내가 들은 한가지 소문만은 어째서인지 지금도 기억에 남아 가끔 의문을 자아내게 할 때가 있다.

당시 신문사에는 조선에서 온 김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나에게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김홍이 《리홍규는 <춘향전>을 공연하게 했기에 주○○국 <검은 명단>에 올랐다》고 말하더라는것이다.

이것은 그때 내가 들은 유일한 나쁜 반영이었다.

2006.11

편자로서의 교훈과 경험

나는 1948년에 창간된 《동북조선인민보》 부간과(즉 문예부)에서 일하던 때의 일로부터 시작하여 이 글을 쓸가 한다.

그때 발생한 한가지 일은 지금도 나의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으며 지어 후회하고 자책도 하게 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로시인 설인선생의 시 《발둔덕》이 우리 부간에 발표된후 비판평론이 벌어진 때의 일이다.

내가 책임을 회피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의 비판은 확실히 우리 부간에서 발기하고 진행한것이 아니였다. 당시의 편집부장(즉 총편집)과 사장이 친히 틀어쥐고 진행했으며 나와 로시인 채택룡선생은 그들의 지시에 따랐을뿐이였다. 나의 기억에 의하면 어찌서인지 평론문장은 모두 신문사 사부를 통하여 우리 부간과로 내려왔던것이다. 연변대학 주홍성선생의 전처였으며 조선 녀류시인이었던 정은주의 비평문장도 우리가 조직한것은 아니였다. 그때 평론문장이 몇편 나갔는데 나의 기억에 의하면 농민들의 형상을 방관자의 립장에서서 소자산계급의 안광과 정감으로 반영하였다는것이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그리고 사부에서 조선의 녀류시인까지 동원하여 평론문장을 쓰게 한것을 보면 그들이 이번 평론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알수 있었다. 그때 나 자신은 물론 비판에 문제가 있다고 간주할만한 수준

도 아니었고 관심도 돌리지 않았다. 몇해후 나는 이 평론들이 설인선생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 되었겠는가 하는것을 두고두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내가 그때 크게 잘못된것이 있는데 어느 하루 부과장이었던 채택룡선생이 원고 한편을 책상우에 내놓으면서 《이건 설인동무가 자기변호를 하는 글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나에게 묻는것이였다. 나는 그때 원고를 읽어보지도 않고 비평을 받는 사람이 자기를 변호하는것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생각만 하고 깊이 고려해보지도 않은채 《내지 마시오!》 하고 말했으며 이 일을 상부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후 차차 《철이 들면서》 그 글은 응당 내야 하는건데 내가 너무나 경솔히 취급했다고 자책하게 되였다. 비평받는 사람에게도 비평이 접수되지 않으면 응당 자기를 충분히 변호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 유리하면 유리했지 평론에 절대 손실은 없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쪽 시비》(갑방만 말하고 을방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것)만 하는것은 옳지 않다. 후에 있는 때번 정치운동마다에서 이런 현상이 형언할수 없을 정도로 엄중했던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비판운동이 끝나기전에 나는 도서출판과에 전근되었기에 평론의 결말은 보지 못했다.

지난해에 나는 우연한 기회에 부간과에서 《발둔덕》비판에 대해 총결을 지은 짤막한 글을 신문에서 보게 되였다.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비판평론때보다는 껍이나 온화하게 씌여졌으며 《발둔덕》의 우점도 긍정한것 같았다. 그때 나는 아마 이 글은 채택룡선생이 썼을것이라고 짐작하였다. (내가 그때 지금의 이 글을 쓸줄 알았더라면 자세히 읽어보았겠는데 그때는 다른 자료수집때문에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다.)

《백화제방, 백가쟁명》은 그후에 전국에 알려진 방침인데 나는 이 방침은 극히 명명한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방침이 제대로 관철되기만 하면 꼭 문예창작의 전성기가 오게 될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런 방침을 정확히 잘 관철한다는것은 말하기는 쉬워도 집행과정에는

곤난도 많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이 방침을 관철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원칙들이 많으므로 모택동의 《연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학》과 등소평동지의 《중국문학예술공작자 제4차대표대회에서 한 축사》이 두 문건을 심입하여 잘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등소평동지가 제기한 네가지 원칙-첫째, 사회주의도로를 견지해야 한다. 둘째, 무산계급전정을 견지해야 한다. 셋째, 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한다. 넷째, 맑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을 견제해야 한다. 그 어느때든지 잊지 말고 문학창작상에서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955년에 나는 연변조선족자치주문화처 처장직을 맡으면서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 주임을 겸했으며 후에는 《연변문예》 주필도 겸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는 《군중작품의 취급과 비판을 둘러싸고》란 글을 발표했다. 그때 편자는 그 문장의 서두에 《편자의 말》을 달았다.

일년래 《연변문예》지의 편집사업에 있어서도 중앙 《문예보》의 편집사업에서 범한 착오와 원칙상에서 류사한 엄중한 결함들이 존재하는바 여기에 신는 《군중작품의 취급과 비판을 둘러싸고》는 본지 편집위원회의 한 사람인 리홍규동무가 우리의 편집사업에서 범한 착오와 편집사상상 존재한 문제를 이미 발견한 재료에 근거하여 초보적으로 검토, 비판한것이다.

우리의 검사공작은 금후 심입하여 진행함으로써 중앙문련에서 지적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것이다. 이한 검사공작은 편집위원회나 편집실 공작인원중에서만 진행할것이 아니고 광대한 독자대중과 투고자들의 열정적인 참가하에서만만이 중앙문련의 지시정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것이다...

리홍규의 비판문장에서는 《어떤 편자는 입버릇처럼 <지방에서 원